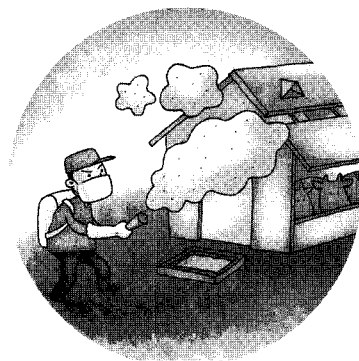


구제역 발생일지

(1월 30일 현재)



○ 1. 2 : 경기 포천시 창수면 한아름농장에서 젓소 2마리가 임상수의 사에 의해 발견돼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간이키트 검사로는 '음성' 이 나왔다.

○ 1. 6 : 간이키트 2차 검사를 통해 증상이 의심돼 농식품부에 신고됐다.

○ 1. 7 : 오후 2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의심증세 11마리 중 6마리 구제역 확진,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대응 '주의(Yellow)' 발령, 해당 농장 소독 및 출입통제소 2곳 설치, 반경 500m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임상예찰과 동시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3km~10km)', '관리지역(10km~20km)'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전국 시도에 직접 지시하여 전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가 발령되었으며 관련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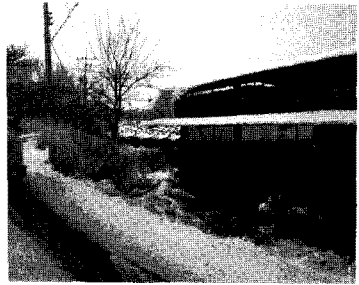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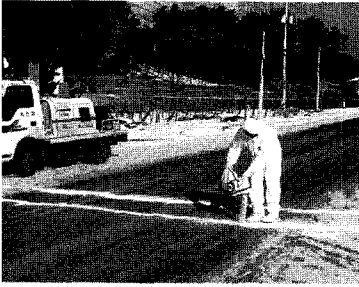
이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농장에 대

각주)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해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하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천여두)에 대하여 살처분 하도록 하였으며,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 1. 8 : 새벽,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졌다. 살처분 매몰된 가축은 발생농장을 포함 총 309두로 소 2농가 264두와 염소 1농가 45두이다. 당초 500m 이내에 포함되었던 돼지 1,500두는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으로 정밀계측한 결과, 발생농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발생농가와와는 높은 산으로 격리된 점을 감안하여 최종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번 발생한 구제역타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바이러스 A형으로 최종 밝혀졌다.
- 1. 9 : 2일 한아름농장을 방문한 수의사가 접촉한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에 소재(최초발생지에서 3.5km 거리)한 한우농가의 한우에서 간이키트 검사 ‘음성’ 판정이 나왔다.
- 1. 13 : 오전 9시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에 소재한 같은 한우농가 (최초발생지에서 600m거리)로부터 한우 3마리가 구제역이 의심되어 오후 4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료를 채취, 정밀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계류리 농장 포함 반경 500m내 한우, 젖소, 돼지 등 구제 동물 사육농가 6곳 1,482마리 살처분되었다.
- 1. 14 : 의심증세가 있는 3마리 중 2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아름 농장을 방문하여 최초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했던 젖소 진료 수의사가 다녀간(1. 2~6일) 19개 농장의 젖소 등 1,174마리를 살처분하였다.
- 1. 15 : 한아름 농장에서 각각 600m, 950m 떨어진 2곳 축산농장서 구제역 의심 소가 신고되었고 방역대책본부가 현장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해당 목장의 젖소 122마리가 살처분되었다.
- 1. 16 : 2곳 농장서 500m 이내 젖소 농장 1곳과 사슴 농장 1곳에 해당하는 우제류 61마리를 살처분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의심증세 2개 농장[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최초발생지에서 600m/900m거리)]에 해당하는 젖소 각각 6마리, 2마리에 대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내려 구제역 발생농장은 4곳으로 집계됐다.



○ 1. 18 : 경계지역 밖 연천군 청산면에 소재한 농장과 포천시 일동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각각 5번째, 6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 1. 19 :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에 소재한 한우농장의 한우 4마리에서 5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5차)(최초발생지에서 9.3km거리), 해당 농장을 포함하여 반경 500m 이내 농장 2곳에서 63마리 가축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충남 서산 음암면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구제역 '음성' 판정이 나왔다.

○ 1. 20 : 충남 당진에 11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

○ 1. 22 : 충남 당진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은 채취된 시료검사 이후 '음성' 판정

○ 1. 25 : 경기 이천시 신둔면에 소재한 낙농목장(최초발생지에서 20km 이상 거리)에서 5마리가 유두에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 구제역 신고가 접수되었다.

○ 1. 26 : 25일 접수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낙농목장의 젖소들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 1. 27 : 경기 포천시 창수면의 양돈 농가(최초발생지에서 2km 거리)에서 일부 돼지가 유두 주변이 별정계 부풀어 오르고, 코 출혈, 침 흘림 등의 증세를 보여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됐다.

○ 1. 28 : 27일 접수된 양돈농가에 대해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 한 결과 '음성' 으로 판정됐다.

○ 1.29 :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에 소재한 젖소목장에서 14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최초발생지에서 3.8km 거리)

○ 1.30 : 전날 접수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젖소농장, 6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6차), 해당 농장을 포함한 반경 500m 이내 농장 3곳에 해당하는 우제류 171마리를 살처분 했다. ㉞